

안전 없는 졸속 공사 → 붕괴 참사로

국과수 감정서 내용 바탕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ㄷ자 건물 만들어 내부 흠 쌓고 გადა 살수·철거 강행
흠·폐자재·굴착기 수직 하중 버틸 지하층 보강 부실
성토체·바닥체 내려앉으며 건물 밀어내...전도 붕괴
공사비만 지분 따라 분배 뒤 재하청...입찰 담합 만연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속도·수익만 쫓는 재개발 사업, 불법 재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입찰 담합, 미흡한 법령 등은 졸속 공사를 초래했다.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가 붕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과 비리 북마전이 다시 확인됐다.

◇국과수 "흠더미·바닥 복합 작용 붕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 결과 막무가내로 강행된 철거 공정 중 발생한 수평 하중에 의해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중부 일부를 부순 건물 뒤쪽에 쌓은 흠더미(성토물) 위에서 30t 넘는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했는데, '굴착기·폐기물 무게와 토압으로 수평 하중이 앞쪽(건물 앞 도로)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사전 구조 검토 없이 내부까지 흠더미를 쌓고 'ㄷ자 형태'로 만든 건물을 გადა 살수와 함께 무리하게 철거하면서 흠더미와 1층 바닥 구조물(슬래브)이 내려앉으며 건물이 뒹굴로 붕괴했다.

철거 과정 문제점은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 진행 ▲하중부 일부 철거 뒤 건물 내부 흠더미 조성 ▲수평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로 조사됐다.

◇철거 무시한 '졸속 공사'

공정도 어겼다. 계획대로 5층부터 아래로 1개층씩 철거하지 않았다. 외벽 강도가 가장 낮은 왼쪽 벽을 먼저 허물지 않고 뒤쪽 벽을 부셨다.

건물 뒤편 부속물 철거 뒤 4층 바닥 높이(11m)로 철거 폐기물(반출대상)과 함께 흠더미를 쌓았다. 당시 흠더미는 건물 3층 내부까지 찼지만, 구조 검토는 없었다.

이후 4·5층 바닥 보와 건물 지탱용 기둥을 한 번에 제거하고, 굴착기가 ㄷ자 형태가 된 건물 내부쪽으로 파고 들어가 철거를 강행했다. 건물 위층까지 닿는 대형 장비(굴, 굴착기 팔)를 쓰지 않아 작업 반경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면지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살수도 이뤄졌다. 지하층 하중 대비 보강 작업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굴착기의 반복 작업과 잔재물(건축 자재·폐기물)이 바닥 하중을 증가시켰다. 많은 물까지 머금은 흠더미와 1층 바닥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 앉으며 건물을 도로 방향으로 넘어뜨렸다.

국과수도 11m 높이 흠더미가 6.2m 높이로 내려 앉으며 건물 앞쪽 방향으로 하중을 쏘고, 1층 바닥 구조물도 'V자' 형태로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흠더미와 1층 바닥 중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비리 북마전' 공사비 떼고 불법 재하청 받치, 참사로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 중엔 광범위한 지분 쪼개기·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있었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



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지형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대건·자산건설)로 파악됐다.

현대산업개발은 50억 7000만 원 규모의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을 한 솔에 맡겼다. 한솔은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맺고 철거 공사비를 '7대 3'으로 나눠 챙긴 뒤 신생업체 백솔(사실상 1인 기업)에 재하청을 줬다. 수주 대가로 조합 관계자에게 준 뇌물액에 따라 이면 계약 비용을 냈다.

다단계 하청을 거쳐 백솔에 주어진 철거 공사비는 12억 원에 불과했다. 백솔 입장에선 장비 임대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 빨리 철거를 마쳐야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굴착기가 올라왔을 흠더미를 4층 바닥 높이(11m)까지 쌓아 올렸다.

석면 철거 공사는 다원·지형이앤씨 등 업체 2곳이 컨소시엄(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임시 사업 연합체)을 구성해 조합으로부터 22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따냈다.

마찬가지로 공사 참여 없이 대금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였다.

실제 공정은 석면 해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 백솔이 도맡았고 공사비도 4억 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

◇ 지분 따먹기 관행 처벌 규정 없어, 보완 시급

당초 28억 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공정도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25%·25%·50%씩 지분을 나눠 수주했다.

이 중 25% 지분을 갖는 대건은 다원 그룹 실소유 의혹이 있다. 수주에 나선 업체들은 미리 협의

해 공정별 낙찰 업체와 투찰금액까지 미리 정해놓고, 실소유 또는 방계 업체를 '허수아비' 경쟁사로 동원해 조직적 입찰 방해 행위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지분 따먹기' 관행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입찰 방해·담합 행위로 확인되면 간접적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처벌 정도도 관대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분 따먹기'가 필연적으로 입찰 방해와 불법하도급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분 따먹기'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 입찰 자격 제한 등 처벌 법규 마련을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원형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목인·방조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안전부장 등이 하도급·불법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확인했다. 재하도급 업체는 공사 장비들 현장에 반입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장비를 등록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안전부장이 지난 3월부터 철거 현장에 있었고, 붕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다 살수' 지시를 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이 드러나 입건된 이는 23명이다. 이 중 9명이 붕괴 책임 관련자고, 나머지 14명은 무리한 철거 공정과 불법 재하도급을 초래한 철거업체 선정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람이 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음주운행 선박 적발... 단속 기준 초과 확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7일 오전 11시 10분경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남동쪽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행 선박 A호(1.20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노화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 순찰 중 음주운행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노화읍 미라리 남동쪽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여 선장 상 대 음주측정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행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하였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약 30분가량 육상에서 소주 6잔을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호 조타기를 조작 하해하였다.

한편 해사안전법 107조에 따르면 5톤미만의 선박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등을 이용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양경찰, 공중화장실 등 '불법설치카메라' 집중 점검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불법설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피서객 방문이 잦은 백운산 4대 계곡(동곡·어치·성불·금천) 등을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점검 내용은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카메라 설치 흔적·선정적인 낙서·남녀 공간 미 분리 등의 불안요소도 함께 점검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유포 집중단속' 플래카드를 각 피서지 입구에 게시 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내버스터미널에 송출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 되었고, '텔레그램 성취취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이번 선제적 대처가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심종섭기자

곡성경찰, 테러 대비 자체 도상훈련 실시

곡성경찰서(서장 김남희)는 7. 27(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석유공사 곡성 지사에 대한 테러 대비 자체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테러 대비 훈련은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드론을 이용한 화학테러를 가정해 도상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김남희 곡성경찰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제 훈련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상훈련을 병행하여 절뚝같은 테러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곡성=양혜영기자

남부소방서, 제1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경연대회서 1위

광주 남부소방서(이정자 서장)는 지난 22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 주최한 제1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구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원의 현장역량 강화와 새로운 구조기법을 발굴하는 소방 학술대회다.

광주 남부소방서는 '구조기법 플랫폼을 통한 지식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효과성 및 현장 적용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부소방서 서장(이정자)는 "이번 대회 주제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굴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